

전 로스 프리벤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1, 20년전과는 달리 현장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 원인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에 있어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기아의 안전맨들이 강조하는 것은 「현장의 자율」이다.

「현장감독자에 의해 안전을 선취확보하고 직장, 반장의 노력에 향후 안전관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산만공장 사정안전예방활동은 무재해운동과 청정운동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무재해운동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서별로 목표일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1배목표를 달성한 후 2배달성에 진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INCENTIVE 제도 동기부여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1배시에는 달성장과 포상금을, 2배시에는 달성패와 포상금을 각각 수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무재해추진을 위한 전문요원 양성 교육에도 주력, 산업안전협회와 안전공단을 통해 요원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청정운동은 7가지 행동목표운동으로서 전공장을 단위로 각 부서별 자체점검, 부서별 CYCLE 점검진행도표에 의해 정해진 부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아직도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되는데는 다소의 불안요소가 있지만 이를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는 아산만 공장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추진력이 강하다.

전체 식구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새로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느끼는 이곳 현장의 열기는 공장앞의 바다만큼이나 넓고 힘이 있다.

전 로스 프리벤션(CHUN LOSS PREVENTION)은 회사명에서 품겨주듯이 “재해예방을 위한 세계 제일의 방재업체”를 목표로 지향하며 1985년에 창립, 다양한 종류와 수많은 시설의 설계, 시공감리, 점검, 교육 및 방재상담을 통해 국내방재업계를 선도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의 대표적인 실적만 꼽는다고해도 설계분야에서는 초대형 건물이며 인텔리гент화한 부산롯데월드, 대형전시장의 표본인 전쟁기념관, 국내외 고도의 기술기준이 적용되는 SS BTX, NCU 플랜트시설, 집약적이며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항공우주연구소, 아주의대병원, 동아일보신사옥, 부산문화방송, 검찰청사 등등이 있다.

다음으로 시공감리 부분에서는 종합방재기술의 현장인 무역전시장, 현대중앙병원, 우편물 집중처리국, 한대체육관, S항공 플랜트 등 다수의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타 발전소, S코닝, 반도체 등 산업체의 점검, 유관 정부기관 및 업체와의 방재상담, 관련 공무원 및 기술자, 학생을 위한 교육 등 국내 방재기술 향상에 상당한 기여와 함께 다수의 업적을 남겨 관련업체로부터 수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아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활용과 함께 조직개편, 관련시설의 현대화와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최신기술정보의 흡수 소화로보다 세련되고 정밀한 양질의 소방엔지니어링 제공, 보다 친절하고도 우수한 소방 서비스업무를 공급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대인들은 물론 차세대를 위한 방재도서출판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일과 계획이 하나하나 알차게 이루어질 때 명실공히 한국의 참된 방재업체로서 그 이름을 드날릴 것이 명약관화하며 또한 기대도 크게 한다.